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 논쟁

-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부채규모 확대 발표와 독일의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 언급으로 그리스 국채 금리가 급등함.
  - EU 통계청은 201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.5%로서 EU 집행위가 지난해 가을 예상했던 9.6%를 초과하였으며, 부채규모는 2009년 말 GDP 대비 115%에서 2010년 말 145%로 급등하였다고 발표함.
  - 그리스의 2년물 국채 금리는 4월 27일 현재 25%를 상회하여 최고치를 경신함.
- 최근의 애널리스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의 채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.
  - 로이터가 유럽 이코노미스트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명(84%)이 그리스의 채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함.
  - 채무 구조조정 방식으로 상환기한 연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고, 금리 인하가 그 뒤를 이었으며, 채무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'헤어컷' 방식도 언급됨.
- 채무 구조조정은 채권·채무국 간 이해 상충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합의가 지연될 경우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.
  - 원금 탕감 또는 만기 연장은 채권국 은행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.
    -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의 그리스 대출금 363억 유로 중 70%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데, 원금의 20~50%만 탕감되어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위기에 빠지게 되며, 그리스 대출금이 619억 유로에 달하는 프랑스는 만기 연장만 이뤄져도 많은 은행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.
  - 반면, 원금 탕감 없는 채무 구조조정은 그리스에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.
    - 그리스 부채는 3,250억 유로로서 적정 규모(1,500억~1,600억 유로)의 두 배가 넘는 상황이므로 원금 일부라도 탕감 받지 못하면 내년 중 채무불이행 또는 국가부도(모라토리엄)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.
  -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또는 국가부도 선언 후 불가피한 채무 구조조정 발생 시 채권 금융회사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.
    - 1998년 러시아 국가부도의 경우 채권자들은 원금의 45.7~69.2%를 포기해야 했고, 2001년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선언시 채권자들은 최대 76.9%까지 원금을 포기한 바 있음.

(Wall Street Journal 등 4/26, Economist 4/22)